통도사 대웅전 불단, '금강계단 예배용' 확인

전국 사찰 불단 · 진영 일제 조사 보고서 발간

불교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청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결과로 통도사 불단서 첫 기록 발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양산 통도사 대웅전 불단은 금강계단 예배 용도로 조성됐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를 통해 발견된 것으로 불단을 통해 사찰의 면모들이 확인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문화재청은 '2021년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 와 '한국의 고승 진영 정밀 학술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

〈2021년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 중 지난해 조사한 △순천 정혜사 대웅전(보물) △양산 통도사 대웅전(국보) △부산 범어사 대웅전(보물) △창녕 관룡사 대웅전(보물) △기장 장안사 대웅전(보물) 등의 불단을 포함한 전국 11개 사찰의 불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불단(佛壇)은 부처님을 높이 모시기 위해 만든 단(壇)으로 그동안 건축물의 일부로 인식되거나 예불의식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 불상, 불화 등 다른 유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 불단은 불상을 봉안하는 종교적 상징성으로 불교 목공예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지만 목재로 만들어져 화재, 충해, 습기 등 외부 환경에 취약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인문학적 조사, 원형 디지털 기록화 등을 진행했고, 다양한 기록문서를 찾아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양산 통도사 대웅전 불단 내부에서 조성 관련 기록 자료를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큰 성과다. 이를 통해 통도사 대웅전 불단이 진신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며, 그 특성상 천판(天板) 상부에 불상을 봉안하지 않은 독특한 구조와 형태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정밀조사를 통해 불단 중대 청판(廳板) 뒷면에서 묵서 기록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했다. 기록을 통해 우운 진희(友雲 眞熙, ?~1694) 스님 주도로 1644년 대웅전을 중건하고 1645년 불단을 제작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불단을 제작한 대목수 상징(尙澄), 부목수 광현(廣玄) 등의 장인 외에도 제작에 참여한 인명 기록을 확인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묵서 내용은 그동안 역사적 기록이 부족한 통도사 대웅전의 중건 관련 사실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성 운흥사 대웅전 불단의 하대목에서 묵서 기록을 발견해 1683년 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1731년 건립한 것으로 알려진 운흥사 대웅전의 중건시기를 보완하는 중요한 기록 자료다.

불패, 명경, 소통 등 불단 장엄구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울산 석남사에는 소통, 명경, 불패가 모두 전해지고 있었으며, 조선총독부 문서, 유리건판 등 과거 기록자료 등을 통해 창녕 관룡사 대웅전 불패는 현재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다는 것이 확인돼, 이전 불단 모습과 본래 장엄구의 위치 등을 추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의 고승 진영 정밀 학술조사 보고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되는 조사에서 지난해 조사한 광주 · 전남 · 경남 지역의 △순천 송광사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밀양 표충사 등 28개 사찰에 소장된 347점의 진영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겼다.

이번 조사로 제작연대, 도상의 특수성, 희소성 등을 고려해 4점의 고승 진영이 그 중요성이 인정됐다.

합천 해인사 '부휴당선수 진영' 은 18세기 후반의 작품이지만 부휴선수(1543~1615)의 유일한 진영이라는 점에서 불교사적 의의가 크며, 해인사 국일암 '벽암당각성 진영' 은 1780년이라는 분명한 제작시기를 남기고 있어 다른 고승진영의 기준이 된다.

해인사 백련암 '환적당의천 진영' 은 1750년에 조성된 작품으로, 현존하는 진영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작품이며, 해인사 홍제암 '송파당 각민 진영' 은 송파각민을 그린 진영 중 양식적으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발간한 2종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 창원 도심 속 걷기명상 거행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원장 범해)이 4월 16일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전법 ON! 포교원력 결집을 위한 걷기순례' 를 진행했다.

이번 걷기명상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과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이 주관했으며, 포교원력 결집을 위한 행사로 이어졌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포교부장 선업 스님, 사무국장 혜안 스님을 비롯해 김영석 포교사단장, 박해덕 경남포교사단장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순례길은 용지문화공원에서 성산아트홀, 창원광장, 창원 가로수길, 경남도민의 집, 용지호수공원을 돌아오는 구간으로 총 4.5km이며, 걷기 명상 외 참선으로 마음의 쉼을 얻도록 시민들을 안내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불교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순례일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듯 걸음마다 알아차림으로 수행하고 포교의 원력을 담는다면 전법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해덕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장은 "오늘 순례를 시작으로 용지호수공원 일원이 정진과 지혜의 숲길로 가꾸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서울 흥천사, 삼신괘불도 보물지정 기념 괘불재 봉행

4월 21일 회주 금곡 스님 등 사부대중 1천명 동참

금곡 스님 "미륵 부처님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셔"

미륵부처님 조성 봉안도…높이 2.5m에 5톤 무게

괘불도란 야외에서 법회나 의식 등 야단법석을 열 때 법당 밖에 걸어놓은 대형 불화를 말한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보면 조선초부터 괘불도를 걸어 크게 의식을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를 정릉에 모시고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된 왕실 사찰 흥천사에도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가 전해진다. 이 성보는 지난해 12월 국가보물로 지정됐다. 특히 흥천사 괘불재는 조선 태조 때부터 흉년과 기근으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야외 괘불법회를 통해 국운융창을 발원하며 우란분재 수륙재 원각법석 화엄법석 기우재 등 국가주요 행사의 의식 등을 봉행했다고 실록에 전해진다.

괘불에 대한 역사적 전통을 간직한 서울 돈암동 흥천사(주지 각밀)는 4월 21일 경내에서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보물 지정 기념 7일 기도 회향과 미륵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흥천사 회주 금곡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중앙승가대교수 금강 스님(제주 원명선원장), 낙산사 선원장 법인 스님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흥천사 회주 금곡스님은 법문을 통해 "미륵부처님은 법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도 항상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때마다 간절히 찾고 명호를 부르면 여러분들도 부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살아가면서 미륵부처님을 마음과 가슴에 안고 또 여러분 스스로 미륵 부처님이 돼주시길 발원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흥천사는 용화전 옆에 미륵부처님을 조성하고 점안식도 봉행했다.



흥천사 괘불재에서 회주 금곡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흥천사 미륵부처님은 높이는 2.5m 크기의 5톤 무게로 국내 화강석을 사용해 1년간 조성했다. 국내 대표적인 조각가인 오채현 작가가 제작한 미륵불에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6바라밀을 상징하는 여섯 동자상이 4개면에 조각돼 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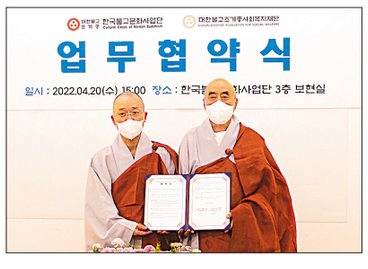
조계종 복지종사자에게도 템플 기회 제공한다

4월 20일 조계종복지재단 · 불교문화사업단 업무협약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이 4월 20일 서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3층 보현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조계종단 산하 사회복지사들에게 쉼과 치유를 위한 템플스테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서에 따라 △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종사자 대상 템플스테이 체험 혜택 제공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 홍보 협력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을 하게 된다.

원경 스님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지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힐링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더욱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교류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인 스님은 "위드 코로나가 지속되며 과부하에 걸린 재단 산하 사회복지사 1만 5000여 명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다"면서 "협약의 계기로 불교문화사업단의 가치도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5월 말부터 전국 5개 사찰(가평 대원사, 수원 봉녕사, 속리산 법주사, 안동 봉정사, 지리산 화엄사(천은사) 등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월주 스님, 대사회 불교실천 구현"

동국대 불교연구원, 4월 22일 월주 스님 1주기 추모 학술대회



"월주 스님은 조계종이 선종의 돈오와 수행에 매몰돼 자비와 대사회적인 실천이 부족한 것을 '깨달음의 사회화' 를 통해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위대한 대승의 실천가였다. 월주 스님이야말로 진표 스님과 부절(符節)이 합하는 현대 금산사의 등불이자 진표 스님의 진정한 계승자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4월 22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태공당 월주 대종사 추모 학술대회에서 "월주 스님이야말로 조선불교 이래 금산사를 대표하는 최고 성자"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월주 스님의 보살행과 사회활동에 주목했다. 김자현 박사는 "스님의 솔선수범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깨달음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을 준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키고 더욱 확장해가야 할 현대의 수행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박사는 올림픽이나 IMF 등 사회적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스님의 활동에 주목했다. 사회 · 경제적 문제가 표출됐을 때 약자 편에 서 그들을 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했고 그것이 바로 스님이 생각하는 이 시대 보살행이라는 것. 김 박사는 "스님은 일생 동안 보현행원을 중시하면서 인류의 고통을 해소시킬 방법을 찾았고 그 방편으로 다방면에 걸친 사회활동을 펼쳤다"면서 "그 이면에는 한국불교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성찰과 자연재해, 질병, 환경파괴,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숙고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조기룡 박사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대승불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던 당시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불교의 대사회적 공헌도를 높이는 운동이었다"며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태동한지 십수 년이 흘렀다. 한국불교가 중생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는 대승불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볼 때"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한마음선원, 우크라이나 구호나서

3월 24일 더프라미스에 3000만 원 전달…피난민 지원 예정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이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지원을 위해 성금 3000만 원을 국제협력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보)에 전달했다.

더프라미스는 3월 8일부터 독일 베를린 중앙역 내 우크라이나 난민 대상으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현지 단체 아사달(ASADAL)과 우크라이나 동부 드네프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용품 · 식량 · 상비약 그리고 아동을 위한 놀이 키트를 지원하고 있다.

더프라미스 재난구호 이사 묘장 스님은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 시민과 피난민들을 위해 희망을 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성금은 폴란드 국경을 통해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한 물품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NGO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한 (사)더프라미스는 △교육 △식수위생 △소득증대 △재난 피해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국제협력단체다. 주요 재난 현장들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피란민 지원과 강원도 산불 피해 긴급 지원 활동 및 쿠데타 피해 미얀마 주민을 위한 긴급식량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차별금지법 촉구 릴레이 기도회 열린다

사노위, 4월 18일부터 국회앞 단식 종료까지 매일 11시부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2명의 활동가를 지지하는 기도에 들어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신 스님은 4월 18일 국회 앞 단식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를 봉행했다. 단식장에는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와 미류 책임집행위원이 4월 11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사노위는 스님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봉행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회를 이종걸, 미류 활동가의 단식이 끝날 때까지 매일 1시간씩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도 첫 주자로 나선 동신 스님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 축원문을 낭독하며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염원했다. 스님은 "삶이라는 어울림 속에서 누구나 보편적 인권과 평등이 실현되고 서로 존중돼 고통에서 벗어나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루속히 제정돼 차별이 예방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는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길 발원했다. 임은호 기자

성행 스님, 불교스카우트 연맹장 재추대

〈연맹10년사〉 발간, 조직 확장 등도 결의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4월 16일 의왕 청계사 설법전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성행 스님(중앙종회의원, 청계사 주지)을 연맹장으로 재추대했다.

이날 총회에서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심의됐다. 불교스카우트는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대구 동화사와 말사 및 양산 통도사 · 부산 흥법사 그리고 호남권 사찰에 불교스카우트 조직 확장, 중앙승가대학교와 포교사 · 국제포교사 ·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지도자 양성,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대비한 회원국과의 교류와 결연, 동련 ·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등 유관 단체와의 MOU를 통한 교류 협력 등을 결의했다.



또 그동안 불교스카우트 운동이 불교계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활동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새로운 출발의 이정표로 삼기 위하여 '연맹 10년사' 를 발간하기로 했다.

연맹장 성행스님은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만큼 호남권 사찰 청소년들이 많은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